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회의 중’은 어떻게 띄어 쓰나요? 여태까지 공문서에서 관용적으로 붙여 썼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밤중’은 붙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경우인가요?

(서민정, 서울 중구 회현동)

답>> 문의하신 표현은 ‘회의 중’으로 띄어 씁니다.

‘중’은 ‘무엇을 하는 동안’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며 그러므로 앞말과 띄어 적습니다.

(예) 근무 중/수업 중/회의 중/식사 중

임신 중/수감 중/대학 재학 중/특별 휴가 중

위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글 맞춤법 제2항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씁니다.

하지만 단어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들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된 합성어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한밤중/밤중/오밤중/야밤중/무의식중/부재중/은연중/허공중

‘회의 중’과 비슷한 예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의존명사 ‘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의존명사 ‘시’는 일부 명사나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이룹니다.

(가) ㄱ. 작업 시/비행 시/점검 시/발생 시/체결 시/적발 시/합격 시

ㄴ. 규칙을 어겼을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

ㄷ.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비밀 번호를 삭제합니다.

(나) 비상시/유사시/평상시/필요시

(가)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단어와 단어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단어들은 한 단어로 볼 수 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음>> ‘손에 굳은살이 박히다.’라고 흔히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이다’와 ‘박히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신미령, 서울 성북구 삼선동)

답>> 문의하신 표현은 손에 굳은살이 ‘박이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박이다’와 ‘박히다’는 표기가 비슷해서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나는 이발사의 굳은살 **박인**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살이 **박인** 손바닥이 얼얼했다.

벽에 **박힌** 못을 빼내다./창이 그의 가슴에 **박혔다**.
얼굴에 주근깨가 **박히다**.

‘박이다’는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살이 생기는 것을 이르는 단어이며 ‘박히다’는 박다의 피동사로 쓰는 단어입니다. 위의 용례를 참고하신다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가방을 땀다.’와 ‘가방을 땀다.’가 있는데, 어느 것이 올바른 표기인지 헷갈려요. 어떤 경우에 ‘**매다**’와 ‘**떼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김중훈, 경기 성남시 분당동)

답>> ‘가방을 땀다.’로 씁니다. 이 경우에 ‘**떼다**’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쓰이는 다른 예들로 ‘총을 떼다.’, ‘가마를 떼다.’, ‘상여를 떼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매다’는 어떤 책임을 지거나 임무를 맡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젊은이는 나라의 장래를 메고 나갈 사람이다.’에서 그 쓰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음이의어로 쓰이는 ‘떼다’의 의미도 살펴봅시다.

(1) 하수도 구멍이 떼다.

밥을 급히 먹으면 목이 떼다.

(2) 마당이 떼어 터지게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3) 나는 너무 기빠 목이 떼었다.

(1)은 뚫려 있거나 비어 있던 곳이 문히거나 막히는 경우, (2)는 어떤 장소가 가득 차는 경우, (3)은 어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경우에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혼동하기 쉬운 ‘매다’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매다’는 끈이나 줄 따위로 마대를 만든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처럼 쓰이는 예로 ‘신발 끈을 매다.’, ‘넥타이를 매다.’, ‘나무에 그네를 매다.’, ‘안전띠를 매다.’, ‘옷고름을 매다.’, ‘살바를 매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매다’는 동음이의어로 논밭에 난 잡풀을 뽑는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김을 매다.’, ‘콩밭 매다.’와 같이 쓰입니다.

정리하면, ‘매다’의 경우, ‘가방을 매다.’, ‘목이 매다.’로 쓰이고, ‘매다’의 경우 ‘신발 끈을 매다.’, ‘김을 매다.’로 쓰인다고 보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물음>> 선생님께 편지를 쓸 때, 편지 봉투에 ‘○○○ 선생님 귀하’로 적으면 되나요?

(김정철, 서울 양천구 목동)

답>> ‘○○○ 선생님 귀하’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귀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상대편을 높여 이름 다음에 붙여 쓰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님’ 또한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귀하’와 중복되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까요? ‘귀하’를 붙이지 말고, ○○○ 선생님(께)로 적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직함이 없어 적절히

높여 대우할 표현이 없는 경우 ‘귀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름만 적어, ‘○○○ 귀하’라고 쓰면 됩니다. ‘좌하’도 받는 사람을 높이는 말이므로 ‘○○○ 좌하’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선생님(께), ○○○ 귀하, ○○○ 좌하’로 씁니다.

물음>> 숟가락과 젓가락은 모두 밥을 먹는 도구인데요. 왜 ‘**숟가락**’은 받침이 ‘ㄷ’이고 ‘**젓가락**’은 받침이 ‘ㅅ’일까요?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라면 ‘숟가락’도 ‘숯가락’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정은희, 서울 강동구 성내동)

답>> ‘**숟가락**’과 ‘**젓가락**’은 ‘술’이라는 단어와 ‘저’라는 단어가 각각 ‘가락’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두 단어 모두 일음절의 단어가 ‘가락’과 결합하여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결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숟가락’과 ‘젓가락’이라는 표기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술’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숟가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그와 같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밥 두어 술’과 같은 말에서 나타나는 의존명사 ‘술’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라는 단어는 현대 국어에서도 ‘젓가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명희의 ‘임꺽정’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점심 국숫상이 나와서 여러 사람이 먹기 시작하는데도 유복이가 저를 들지

않아서 겸상한 오가가 물었다.

위의 문장에서 ‘저’ 대신 ‘젓가락’을 써도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저’라는 단어는 ‘젓가락’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술’과 ‘저’라는 단어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수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술’이라는 단어와 ‘저’라는 단어가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되어 ‘수저’가 된 것입니다. 단어들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되는 경우는 ‘딸+님=따님, 말+소=마소, 활+살=화살’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들에 결합하는 ‘가락’이라는 단어는 ‘가늘고 긴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과 ‘저’가 ‘가락’과 결합할 때는 각기 다른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술’과 ‘가락’이 결합할 때는 한글 맞춤법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술’과 ‘가락’이 결합할 때는 ‘술’의 받침을 ‘ㄹ’이 아닌 ‘ㄷ’으로 적어서 ‘숯가락’이 됩니다.

‘저’와 ‘가락’이 결합할 때는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는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저+가락’의 경우에는 제30항의 세부 조항인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이시옷을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술+가락 → 숯+가락 → 숯가락
저+가락 → 저+ㅅ+가락 → 젓가락

‘순가락’은 표준 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ㄴ), ㄷ(ㄷ, ㅌ,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ㄴ, ㄷ’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에 의해서 [순까락]으로 발음됩니다.

물음>> ‘입안’과 ‘입속’의 띄어쓰기가 혼동이 됩니다. 전에는 ‘입안’은 띄어 쓰고 ‘입속’은 붙여 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사전을 찾아보니 ‘입안’이 한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적는 것이 올바른 표기인가요?

(이혜림, 서울 관악구 서림

동)

답>> ‘입안’과 ‘입속’ 모두 의미에 따라 붙여 쓰거나 띄어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입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이 개정되기 전에는 ‘입안’이 사전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는 표기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시에는 ‘입안’을 합성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하였으므로, 붙여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 개정 이후 ‘입안’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안01

「명사」 『의학』

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빈 곳. 음식물을 섭취·소화하며, 발음 기관의 일부분이 된다. ㄴ구강02·입속.

이제, ‘입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전에는 ‘입속’을 사전에서 이렇게 풀이하였습니다.

입속[속] [입속만[쑥]]

「명사」

‘구강2(口腔)’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전에는 ‘입속’이 ‘구강’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바른 표기였으나, 개정 후에는 의학 분야의 전문어로 ‘입안’과 동의어로 뜻풀이가 바뀝니다.

입-속[-쑥] [입속만[-쑥-]]

「명사」 『의학』

= 입안01.

‘입속’은 ‘입안’과 같은 뜻이며, 이제는 ‘구강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안’과 ‘입속’이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었다고 해도 ‘입안’과 ‘입속’을 언제나 붙여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단어는 구강과 대체가 가능한 전문어로 사용할 경우에만 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구강02 (口腔) [구 : -]

「명사」

『의학』 = 입안01.

¶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받아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나는 환자의 구강 안으로 검자를 들이밀면서...《윤홍길, 비늘》

정리하자면, ‘입안’, ‘입속’, ‘구강’은 동의어이며, 세 단어 모두 의학 분야의 전문어입니다. 단, 의학 분야의 전문어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입안’, ‘입속’은 ‘입 안’, ‘입 속’과 같이 띄어 적어야 합니다. 이 단어들이 전문어인지 아닌지의 구별은 어려워 보이지만,

- (1) 입 안에 넣은 사탕을 뱉어라.
- (2) 입 속에 뭘 넣고 우물거리는 거야?

위와 같은 문맥에서 ‘입 안’과 ‘입 속’을 ‘구강’으로 대체할 경우 “구강에 넣은 사탕을 뱉어라.”, “구강에 뭘 넣고 우물거리는 거야?”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맥은 어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입 안’과 ‘입 속’은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음>> ‘파랑-’ 어간 뒤에 어미 ‘-습니다’가 올 때 ‘**파랑습니다**’가 되고, ‘파랑-’ 뒤에 ‘-ㅂ니다’가 오면 ‘**파랍니다**’가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현수, 경북 포항시 북구 김현수)

답>> ‘파랑다’의 어간에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종결 어미 ‘-습니다’가 결합하면 ‘**파랑습니다**’가 됩니다.

‘파랑다’는 ‘**히용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입니다. ‘**히용 불규칙 활용**’은 일부 형용사에서 어간의 끝음절 받침 ‘ㅎ’이 ‘-ㄴ, -ㅁ’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거나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함께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이르며 ‘파랑다’가 ‘파라니’, ‘파라면’으로, ‘노랑다’가 ‘노라니’, ‘노라면’으로 변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종결 어미 ‘-습니다’가 결합하는 경우는 ‘ㅎ’이 탈락하는 환경이 아니므로 ‘파랑습니다’와 같이 활용합니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을 살펴보면, 자음 뒤의 종결 어미로 ‘-읍니다’가 아닌 ‘-습니다’가 표준어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3에 있었던 ‘그럽니다, 까맣니다, 동그럽니다, 퍼럽니다, 하얗니다’ 등의 용례는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렇습니다, 까맣습니다, 동그랗습니다, 퍼렇습니다, 하얗습니다’가 표준어입니다. 문의하신 ‘**파랑습니다**’는 올바른 활용형이며 ‘파랍니다’는 잘못된 활용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음>> 가게와 공용 시설물에는 출입문에 흔히 ‘미세요’로 되어 있으며 백화점에는 ‘미십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두 표현의 차이점을 알려 주세요.

(문영심, 서울 관악구 삼성동)

답>> ‘미세요’는 ‘말다’의 어간에 어미 ‘-세요’가 결합한 말입니다.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어미인 ‘-세요’는 해요체로 하오체와 합쇼체를 쓸 자리에 두루 쓰는 비격식체입니다. ‘미십시오’는 ‘말다’의 어간에 합쇼할 자리에 쓰여,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십시오’가 결합한 말입니다. ‘미세요’가 격식을 차리지 않는 자리에서 쓰는 말이라면 ‘미십시오’는 격식 있는 자리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물음>> “네 말이 맞다면 그 일은 철수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표현과 “네 말이 맞는다면 그 일은 철수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표현은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신영미, 서울 강동구 상일동)

답>> ‘맞다’는 ‘말, 육감, 사실 따위가 틀림이 없다.’를 의미하는 동사로 쓰입니다. ‘-는다면’의 원말은 ‘-는다고 하면’인데, ‘-는다고’는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쓰입니다. ‘-다면’의 원말은 ‘-다고 하면’인데, ‘-다고’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쓰입니다. 동사 ‘맞다’의 어간에는 ‘-는다면’이 결합한 ‘맞는다면’을 쓸 수 있으므로 “네 말이 맞는다면 그 일은 철수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문장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물음>>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피부 지퍼를 **잠궈** 노화 예방하기’라는 제목을 봤습니다. ‘**잠그다**’가 기본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궈**’라는 활용형이 될 수 있을까요? 신문 기사에 나오니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표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윤성수, 경남 울산시 중구 성남동)

답>> 문의하신 표현은 ‘**잠가**’로 쓰이 바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잠그다**’가 기본형인 말로, ‘**잠가**’로 활용합니다.

일상의 언어에서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나 방송 자막에서조차 종종 ‘*잠궈’와 같은 잘못된 표기가 나옵니다. 이는 ‘잠그다’의 기본형 자체를 ‘*잠구다’로 잘못 알고 있거나 ‘잠그다’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ㄱ’이 탈락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로 보입니다.

‘잠그다’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입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 -니, -고’ 등이 올 때는 그 활용형이 ‘잠그는, 잠그니, 잠그고’로 어간이 변하지 않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 -았-’이 오면 어간의 ‘ㄱ’이 줄어듭니다. 어간 ‘잠그-’에서 ‘ㄱ’이 탈락하면 ‘잠ㄱ-’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 어미 ‘-아, -았-’이 결합하므로 활용형은 ‘잠가, 잠갔-’이 됩니다.

‘잠그다’와 같이 활용하는 말에는 ‘담그다’가 있습니다. ‘김치를 **담가** 먹다.’, ‘김치를 **담갔다**.’처럼 어간의 ‘ㄱ’이 탈락하고 ‘담가, 담갔다’로 활용합니다.

한글맞춤법 제18항에서는 어간의 끝 ‘ㄱ’이 줄어드는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뜨다: 떠 떴다

끄다: 꺼 켜다

크다: 커 컸다

답그다: 답가 답갔다

고프다: 고포 고포다

따르다: 따라 따랐다

바쁘다: 바빠 바빴다

위 예에서 보신 것처럼 어미 ‘-아/어’가 결합할 때 어간의 ‘ㄱ’이 줄어드는 단어로는 ‘잠그다, 답그다’ 외에도 ‘뜨다, 끄다, 크다, 고프다, 따르다, 바쁘다, 치르다, 트다, 가쁘다, 기쁘다, 나쁘다, 미쁘다, 아프다, 슬프다, 예쁘다’ 등이 있습니다.

어미 ‘-아/어’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결합 형태가 달라지는데, 양성 모음인 ‘ㅏ, ㅑ’가 어간에 남았을 경우 어미 ‘-아’가 결합하고, 그 밖의 모음(음성 모음이거나 어간에 모음이 없을 때)에는 어미 ‘-어’가 결합합니다. 가령, ‘답그다, 고프다’는 ‘ㄱ’을 빼고 남은 모음이 ‘답-, 고-’의 ‘ㅏ, ㅑ’이므로 어미 ‘-아’가 결합하여 ‘답가, 고포’가 됩니다. 그런데 ‘예쁘다’는 ‘ㄱ’을 빼고 남은 모음이 ‘ㅞ’로 이것은 음성 모음이므로 어미 ‘-어’가 결합하여 ‘예뻐’가 되는 것입니다. ‘뜨다, 크다’처럼 ‘ㄱ’을 뺄 때 남은 모음이 없는 경우도 어미 ‘-어’가 결합합니다.

이와 같은 불규칙 활용의 예를 기억하고 있으면 언어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